“94년 종단개혁사, 비구니 활동 조명돼야”

김광식 교수, ‘비구니 정혜도량’ 역사 · 성격 조명

〈대각사상〉서 특집 논문 게재
비구 중심 개혁史에서 전환점
1994년 5월9일 정혜도량 창립
종단 개혁서 비구니 창구 활동
비구니 종단 참여 놓고 갈등도
“관련 자료 수집 절실해”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은 현대 한국불교사, 조계종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다. 이때 만들어진 종단 운영체계와 종헌 · 종법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에 걸맞게 종단 개혁의 개요를 비롯해 성격, 영향, 평가, 한계점 등이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연구들도 대부분 비구스님 중심으로 비구니스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못했다. 1994년 종단 개혁에서 활동했던 ‘비구니 정혜도량’의 역사와 성격 등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대각사상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대각사상〉 제35집 특집논문으로 기고한 ‘비구니 정혜도량(1994)의 역사와 성격’을 통해 1994년 종단개혁에서 비구니 정혜도량의 역할 등을 조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혜도량은 1994년 5월 9일 삼선포교원에서 500여 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통해 출범했다. 당시 언론기사 등을 살펴보면 정혜도량은 종단개혁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소극적 활동을 성찰하고 개혁의지 확산, 비구니 역할 및 위상 논의 등이 주요 목적임이 확인된다.

또한 창립법회에서 비구니스님들은 △비구니 위상 정립해 종단 화합 △불교 관계 악법 철폐해 불교 자주화 실현 △3.29, 4.10 법난 유발한 김영삼 대통령 공개 사과와 최형우 내무부 장관 즉각 해임 등이 담긴 결의문도 발표한다.

이 같은 결의를 다진 정혜도량의 전신은 ‘종단개혁을 뜻을 함께하는 비구니 모임’이다. 이들 모임은 1994년 4월 26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자민 · 선중 스님 등 13명이 참여한 1차 모임부터 경북 영천 백흥암에서 선원 · 강원 대표 63명이 참여한 3차 모임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정혜도량은 창립법회 전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비구니스님들의 ‘공식적 단일창구’로 승인을 받았다.

김 교수는 “정혜도량은 종단개혁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라는 위상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단개혁에서 ‘비구니 중심 단일 의사 창구’의 권한을 부여받은 정혜도량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두 번에 걸친 세미나와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비구니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모여진 의견들은 정혜도량에서 정리돼 총무원 등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어떤 내용의 안건들이 정리돼 전달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주장에 대한 종단 내부 개혁 작업은 지난했다. 당시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팔경계 등을 들어 “비구 총무원장을 선출하는데 왜 비구니가 들어오는가”라고 힐난했다. 현실의 벽을 절감한 정혜도량은 8월 16일 종단개혁의 중추인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범종추)에 공문을 보내 탈퇴 의사를 밝힌다.

일련의 사실을 정리한 김 교수는 △개혁 최일선에 참여한 비구니 스님들의 성향과 참여하지 않은 스님들의 정혜도량에 대한 인식 △전국비구니회가 직접 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전국비구니회에서의 정혜도량 계승 의식 등이 향후 더 조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94년 종단개혁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의 고뇌와 활동이 적절히 평가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비구니스님들의 활동에 대한 서술과 평가가 부재했고, 비구니계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 그 연유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정혜도량에 대한 자료 수집과 관련 자료집 발간을 전국비구니회에 요청했다. 그는 “비구니 역사는 전국비구니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계종단사, 현대한국불교사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자료가 산실되기 전, 관련자가 생존시 자료를 찾고 증언을 채록해 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음성지순례, 동아시아 최적 문화상품”

이재수교수, 〈정토학연구〉에서
전통사찰 순례 관광 방안 모색
33관음순례, 외국인 지평 확대
브랜드화 · 대중화 전략은 부재
순례 사찰 신앙 중심 재편해야



2009년 마곡사에서 진행된 ‘김민종과 함께하는 33관음성지 순례 템플스테이’의 모습. 한국과 일본 팬미팅 형식으로 진행돼 화제가 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의 성과와 전통사찰 성지순례 활성화 방안을 살핀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한국정토학회 발간 학술지 〈정토학연구〉 제35집에 ‘전통사찰 순례 관광의 성과와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일본 관광객을 중심으로 시행한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전통사찰 성지순례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은 관음신앙 관련 유 · 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33곳을 선정해서 순례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한국불교 관음신앙의 재발견, 전통불교문화를 연계한 고품격 성지순례 상품 개발, 템플스테이에 일본 순례객 확대 등을 도모했다.

순례 코스는 서남권(서해안 고속도로 중심) · 남부권(남해안 중심) · 동남권(영남 중심) · 동북권(강원도 중심)으로 구성됐다. 2017년 6월에 5년간 순례를 마친 내국인 순례자들이 회향식을 가졌고, 같은 해에는 혼자서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 일본인 마에코 씨가 순례증서를 받아 화제가 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순례를 완료해 공식 회향한 인원은 일본인 41명, 내국인 36명 총 77명으로 집계됐다.

33관음성지순례의 성과로 이 교수는 순례 문화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음을 꼽았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체험의 폭을 넓힌 점도 주목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관음성지 순례 사업은 단순한 관광의 차원을 넘어서 불교인들에게는 신앙 표현의 기회이지만, 비종교인들에게는 힐링과 삶의 긍정적 원동력을 찾게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이 역사 · 정체성이 부족하고 브랜드화와 포교 대중화 전략이 부재했던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교수는 전통사찰 소재 성지순례 사업의 전망을 살폈다. 그는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유한 아시아권과 중국이 모두 불교문화권임을 주목하며 “불교와 전통사찰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은 성지순례와 함께 성공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통사찰 관음성지 순례는 “현대인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관광문화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사찰 성지순례 개발과 활용을 위해 이 교수는 성지순례의 체험 요소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성지 관련 스토리텔링과 순례자들의 체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지순례 활성화를 위한 전통사찰들을 성격별로 재정비할 것도 제언했다. 이 교수는 “신앙을 테마로 하는 콘텐츠의 진정성을 지닌 성지순례 사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앙 중심으로 성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선적으로 관음신앙을 지닌 사찰을 선정 · 재정비하고 정토성지, 지장성지 등 연차적으로 정비할 것도 제언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문화콘텐츠를 위한 성지순례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성지순례 운영조직체계 확대 개편 △온라인 · 모바일 기반 인증 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참여자가 성지 사찰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성지순례 사찰을 위한 누리집과 웹 및 모바일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종로 조계사 석가불도 서울 ‘7월 문화재’ 선정

市 누리집 등 카드뉴스로 소개



서울시 유형문화재 종로 조계사 석가불도〈사진〉가 서울시 ‘7월의 문화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조계사 석가불도와 서울 한강철교(국가 등록문화재), 순명비 유강원 석물(서울시 유형문화재)을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조계사 석가불도는 조계사 대웅전 불상 후불탱화로 지난 2000년 7월 15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됐다. 조계사 석가불교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로서 구도가 뛰어나고 인물의 형태가 개성 있게 표현됐다. 석가불도의 작가는 근대 불교 미술작가 김일섭 선생으로, 일제 치하에서 모든 종단이 뜻을 합쳐 불사를 일으켜 만든 불화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서울의 문화재와 역사적 사건들은 카드뉴스로 제작해 온라인에 소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만해 스님의 거처였던 심우장이, 5월에는 연등회가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달의 서울문화재 카드뉴스’는 매월 15일,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문화본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중론’으로 읽어낸 ‘입보리행론’ 논파법

중관학당 8월 6~7일 줌 강의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대표 신상환)은 오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중론〉으로 〈입보리행론〉을 읽는다- 깨달음의 길 〈입보리행론〉에 등장하는 주요 논파법’을 주제로 여름캠프를 줌(Zoom) 강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샨띠 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한국 불자들에게 널리 읽히는 티베트 현교를 대표하는 저작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입보리행론〉에 등장하는 〈중론〉의 주요 논파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는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입보리행론〉에 등장하는 힌두 6파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에 등장하는 사유의 특징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름캠프 참가비는 12만 원이며, 중관학당 후원회원은 10만 원이다. (010)8801-4037

신성민 기자



